

##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and Children's Stress-Coping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ion\*

김지연(Ji Yeon Kim)<sup>1)</sup>

남은영(Eun Young Nahm)<sup>2)</sup>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child's self-regulation and stress-coping behavior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a child's self-regulation between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a child's stress-coping behaviors. The sample included 407 elementary school 5th-6th grades and their parents (comprising 407 couples) in Seoul.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hild's self-regulation and stress-coping behaviors. Secondly, it was also found that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were both partially and indirectly related to a child's stress-coping behaviors through the child's use of self-regulation.

**Key Words** : 부모의 반응(parental response), 자기조절(self-regulation), 스트레스 대처행동 (stress-coping behaviors), 정서사회화(emotion socialization).

\* 본 논문은 2011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본 논문은 2010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2010년도 한국 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 되었음.

<sup>1)</sup>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아동심리전공석사

<sup>2)</sup>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Eun-Young Nahm,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ul Women's University, 126 Gongneung-dong, Nowon-gu, Seoul 139-774, Korea  
E-mail : nahmey@swu.ac.kr

## I. 서 론

현대사회는 많은 갈등과 치열한 경쟁, 다양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요구하므로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성인들이나 사춘기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동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장연집, 2001; 한미현, 1996). 하지만 아동기는 성인기와 달리 아직 성장 발달하는 과정이고, 또한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에 스트레스 대처에 필요한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기술들이 부족하다(소영원, 2006). 때문에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행동문제(정문자·박진아, 2001), 학교적응(이옥주, 2003) 우울증(Rowlison & Felner, 1998)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스트레스가 아동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대처행동에 의해 완충되어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스트레스의 경험 유무보다 개인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대처행동에 더 설명력이 있음이 밝혀졌다(박희석·오상우·손정락, 1993; Band & Weisz, 1988). 따라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발달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의 경험유무 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을 밝히는 노력이 요구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대처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김경숙, 2003).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들은 크게 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들과 개인 내적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로 나누어진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조결자·이명희, 2010), 사회지지(소영

원, 2006) 등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으며, 개인 내적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김광웅, 2007), 정서 지능(김경숙, 2003), 자아탄력성(박연성·현은민, 2007) 등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국내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환경적 요인 혹은 개인 내적요인과의 관계성만을 살펴보고 있으며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그 관계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반응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요인으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초점을 두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 역할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자녀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태도는 아동의 정서이해와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Dunn, Brown, & Bearsall, 1991). 이와 관련하여 Dunn과 Brown(1994)은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나타내는 태도는 자녀가 기쁨, 행복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낼 때 보다는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낼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Eisenberg, Cumberland와 Spinrad(1998)도 부정적 정서와 관련한 사회화 경험이 자녀의 정서 사회화에 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자녀가 표현하는 정서 중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부모가 자녀의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수용해주며 그것을 통해 아이

를 가르치는 경우에 아이는 정서적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Gottman & Nahm, 2007). 반면,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은 아동은 정서표현이 처벌받는 맥락에서 자신의 정서를 숨기는 것이 비록 적응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생리적인 각성상태가 되며,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이전에 받았던 처벌과의 반복된 연합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Gottman, Katz, & Hooven, 1997).

한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요인으로 자기조절능력을 들 수 있다. Mischel, Shoda와 Peake(1988)는 학령 전 시기에 만족지연 능력이 낮았던 아동은 청소년 시기에 참을성이 없고 충동적이었으며, 학령 전 시기에 자기 통제력이 높았던 아동은 청소년 시기에 학업수행이 우수했고, 사회적 유능감이 높았으며, 좌절감을 잘 다루며,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아동의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자기조절능력은 기질적인 특성이라고 하지만 기질의 발현에 있어서 경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Rothbart & Bates, 1998). 때문에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부모변인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련성을 중시하고 있다(유은희 · 임미옥, 2006). Gottman과 그 동료들(1997)은 아동이 적절한 정서 표현을 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하는데 지지적인 부모의 자녀는 더 높은 자기조절능력을 갖는다고 보고하였으며, Eisenberg, Fabes와 Murphy(1996)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처벌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 아동의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밝혀냈다.

이처럼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

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를 보여준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Eisenberg와 동료들(2001)은 5세-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문제행동,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조절능력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즉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높은 사회적 능력 및 낮은 외재화 문제행동 사이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lly와 Julie(2002)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태도가 자녀의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수용태도와 자녀의 공격성 사이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한편, 아버지의 역할은 예전에는 ‘부양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양육에 대해서는 ‘이차적인 보조자’(송하나, 2006)로 간주되어 왔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점차 아버지의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즉 아버지는 자녀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역할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 또한 중요하고 의미 있다(Pruett, 2000)는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K초등학교와 P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07명과 그들의 부모 407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자 199명(48.89%), 여자 208명(51.11%)이었다.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묻는 질문지는 담임교사가 아동에게 배부하여 그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관한 질문지는 담임교사가 아동에게 배부하여 부모에게 받아오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아동과 부모에게 550쌍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총 504쌍의 질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407쌍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연구도구

#### 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Eisenberg, Fabes와 Brenzweig(1990)가 개발한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한 김희정(1994)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CCNES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아동들이 정서적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화, 슬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

게 되는 12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크게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의 2개 범주로 나누어진다. 지지적 반응은 감정표현격려, 정서중심적, 문제중심적 반응의 3개 하위범주로, 비지지적 반응은 최소화, 처벌적, 스트레스적 반응의 3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된다. 6개의 하위범주는 각각 12문항씩 총 7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문항의 총점은 12점에서 60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반응을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값은 감정표현격려 반응 .69, 정서중심적 반응 .86, 문제중심적 반응 .80, 최소화 반응 .62, 처벌적 반응 .73, 스트레스적 반응 .65이었다.

#### 2)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정서적 자기조절능력과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hields와 Cicchetti(1998)가 개발한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번안하여 사용한 박서정(200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나 교사 등 아동과 가까운 성인이 보고하는 도구이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어른들이 말을 걸면 호의적이거나 공손하게 반응한다', '나는 놀이에 다른 아이를 끌어들이려 할 때 지나치게 흥분한다'가 있다.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영주(2008)의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 패널 설문지에서 자기 통제와 공격성 및 정서조절을 측정하는 문항을 추출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된 자기조절능력 척도에서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만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가 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정서조절과 관련된 문항 20문항, 행동적 자기조절과 관련된 문항 10으로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값은 정서적 자기조절능력 .80, 행동적 자기조절능력 .80이었다.

### 3)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신재선(2001)이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적극적, 소극적, 회피적, 공격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5가지 하위범주로 구분되며, 각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의미를 살펴보면, 적극적 대처행동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 행동적 반응이며, 소극적 대처행동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 문제에 의해 발생한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 행동적 반응이다. 회피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 문제를 유보, 부정, 체념, 수용함으로써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회피하려는 인지 행동적 반응이며, 공격적 대처행동은 신체나 언어적 공격을 통해 스트레스 유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지 행동적 반응이다. 그리고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서적 위안을 얻고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동이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가능한 총점 범위는 25점에서

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값은 적극적 대처행동 .77, 소극적 대처행동 .54, 회피적 대처행동 .51, 공격적 대처행동 .77,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62이었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소극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세 하위요인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다중회귀분석의 가정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본 때, VIF(1.00~1.04)가 10 이하이고 Tolerance(0.96~1.00)가 0.1 이상이므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결과

#### 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일반적 경향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남녀 집단에 대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남녀 집단에 대한 *t*-test 결과를 보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 = -2.63$ ,

$p < .01$ ). 즉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하위변인에서는 남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중 감정표현 격려

〈표 1〉 각 하위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성차에 대한 *t* 검증 ( $N = 407$ )

변인	남( $n = 199$ )	여( $n = 208$ )	전체( $N = 407$ )	<i>t</i>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감정표현격려	3.25(.48)	3.24(.43)	3.24(.45)	.25
	정서중심적	3.61(.56)	3.66(.53)	3.64(.54)	-.92
	문제중심적	3.75(.54)	3.77(.50)	3.76(.52)	-.36
	최소화	3.27(.42)	3.31(.41)	3.29(.41)	-1.04
	차별적	2.71(.50)	2.80(.49)	2.75(.50)	-1.86
	스트레스적	2.83(.42)	2.88(.46)	2.85(.44)	-1.13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	감정표현격려	2.96(.55)	3.03(.55)	2.99(.55)	-1.35
	정서중심적	3.53(.63)	3.64(.57)	3.58(.61)	-1.82
	문제중심적	3.53(.56)	3.56(.55)	3.55(.56)	-.61
	최소화	3.27(.54)	3.21(.47)	3.24(.51)	1.39
	차별적	2.56(.64)	2.53(.62)	2.54(.63)	.61
	스트레스적	2.73(.51)	2.73(.46)	2.73(.48)	-.08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정서적	3.68(.49)	3.74(.45)	3.71(.47)	-1.37
	행동적	3.64(.70)	3.63(.71)	3.64(.70)	.07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적극적	2.67(.62)	2.73(.62)	2.70(.62)	-1.09
	공격적	1.97(.62)	1.95(.60)	1.96(.61)	.29
	사회지지 추구적	2.04(.54)	2.18(.57)	2.11(.56)	-2.63**

\*\*  $p < .01$ .

〈표 2〉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상관관계 (N = 407)

	1	2	3	4	5	6	7	8	9	10	11
1	-	.58***	.57***	.21***	.03	-.03	-.02	-.7	.00	-.04	-.02
2	.58***	-	.84***	.12*	-.22***	-.30***	.08	-.00	.06	-.09	.01
3	.57***	.81***	-	.12*	-.21***	-.29***	.08	-.02	.04	-.07	-.03
4	.18***	.26***	.21***	-	.51***	.38***	-.08	-.04	.02	.03	-.02
5	-.09	-.10*	-.16**	.43***	-	.69***	-.11*	-.07	.04	.08	.01
6	-.19***	-.27***	-.28***	.25***	.58***	-	-.13**	-.09	.02	.14**	.06
7	.15**	.12*	.19***	.03	-.11*	-.20***	-	.63***	.49***	-.56***	.19***
8	.07	.04	.08	.03	-.10*	-.14**	.63***	-	.32***	-.68***	.18***
9	.11*	.12*	.16**	.09	.05	-.01	.49***	.32***	-	-.21***	.47***
10	-.11*	-.09	-.13**	-.05	.11*	.15**	-.56***	-.68***	-.21***	-	-.04
11	.04	.10*	.10*	.38	.04	-.03	.19***	.18***	.47***	-.04	-

주. 대각선 하단 : 모의 상관계수 / 대각선 상단 : 부의 상관계수

1. 감정표현력려 반응, 2. 정서중심적 반응, 3. 문제중심적 반응, 4. 최소화 반응, 5. 처벌적 반응, 6. 스트레스적 반응, 7. 정서적 자기조절, 8. 행동적 자기조절, 9. 적극적 대처행동, 10. 공격적 대처행동, 11.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 $p < .05$ . \*\* $p < .01$ . \*\*\* $p < .001$ .

반응은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과 정적 상관, 적극적 대처행동과 정적 상관, 공격적 대처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은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과 적극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문제 중심적 반응은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 적극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과 정적 상관, 공격적 대처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은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과 부적 상관, 공격적 대처행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트레스적 반응은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과 부적 상관, 공격적 대처행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 중 처벌적 반응은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버지의 스트레스적 반응은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과 부적상관, 공격적 대처행동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 적극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과는 정적 상관, 공격적 대처행동과는 부적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 적극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과는 정적 상관, 공격적 대처행동과는 부적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적 역할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

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매개효과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야 하고,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에서 보다는 3단계에서 더 낮게 측정되거나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은 유의하지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을 경우 완전 매개모형이 되며,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도 유의한 경우 부분 매개모형이 된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난 결과만을 아래의 표에 제시하였다.

- 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적 역할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이 자녀의 부정

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 적극적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감정표현격려 반응과 아동의 적극적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감정표현격려반응과 매개변인인 정서적 자기조절능력 사이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beta = .15, p < .01$ ),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감정표현격려반응이 종속변인인 아동의 적극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 $\beta = .11, p < .05$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종속변인인 아동의 적극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만( $\beta = .48, p < .001$ ),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감정표현격려 반응이 종속변인인 아동의 적극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의 완전 매개역할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문제중심적 반응과 아동의 적극적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 공격적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머니의 감정표현격려 반응과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적 역할을 분석한 결과, 1단계와 2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만( $\beta = -.55, p < .001$ ), 어머니의 감정표현격려



〈표 3〉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적극적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의 매개검증( $\beta$ ) ( $N = 407$ )

변인	단계	변인	어머니의 반응		아버지의 반응	
			$\beta$	$R^2$	$\beta$	$R^2$
감정표현 격려 반응	1단계 (독립→매개)	감정표현격려 → 정서적자기조절	<b>.15**</b>	<b>.02</b>	-.01	.00
	2단계 (독립→중속)	감정표현격려 → 적극적 대처행동	<b>.11*</b>	<b>.01</b>	.00	.00
	3단계 (독립,매개→중속)	감정표현격려, 정서적자기조절 → 적극적 대처행동	<b>.03</b> <b>.48***</b>	<b>.24</b>	.01 .49***	.24
정서 중심적 반응	1단계 (독립→매개)	정서중심적 → 정서적자기조절	<b>.12*</b>	<b>.01</b>	.08	.01
	2단계 (독립→중속)	정서중심적 → 적극적 대처행동	<b>.12*</b>	<b>.01</b>	.06	.00
	3단계 (독립,매개→중속)	정서중심적, 정서적자기조절 → 적극적 대처행동	<b>.06</b> <b>.48***</b>	<b>.24</b>	.02 .49***	.24
문제 중심적 반응	1단계 (독립→매개)	문제중심적 → 정서적자기조절	<b>.19***</b>	<b>.04</b>	.08	.01
	2단계 (독립→중속)	문제중심적 → 적극적 대처행동	<b>.16**</b>	<b>.02</b>	.04	.00
	3단계 (독립,매개→중속)	문제중심적, 정서적자기조절 → 적극적 대처행동	<b>.07</b> <b>.47***</b>	<b>.24</b>	.00 .49***	.24

\*  $p < .05$ . \*\*  $p < .01$ . \*\*\*  $p < .001$ .

반응이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의 완전 매개역할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처벌적, 스트레스적 반응과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도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의 스트레스적 반응과 아동의 공격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도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이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

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과 아동의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 1단계와 2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만( $\beta = .18, p < .001$ ),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이 아동의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의 완전 매개역할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반응과 아동의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표 4〉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의 매개검증( $\beta$ ) ( $N = 407$ )

변인	단계	변인	어머니의 반응		아버지의 반응	
			$\beta$	$R^2$	$\beta$	$R^2$
감정표현 격려 반응	1단계 (독립→매개)	감정표현격려 → 정서적자기조절	.15**	.02	-.01	.00
	2단계 (독립→종속)	감정표현격려 → 공격적 대처행동	-.11*	.01	-.04	.00
	3단계 (독립,매개→종속)	감정표현격려, 정서적자기조절 → 공격적 대처행동	-.02 -.55***	.31	-1.16 -13.45***	.31
문제 중심적 반응	1단계 (독립→매개)	문제중심적 → 정서적자기조절	.19***	.04	.08	.01
	2단계 (독립→종속)	문제중심적 → 공격적 대처행동	-.13**	.02	-.07	.00
	3단계 (독립,매개→종속)	문제중심적, 정서적자기조절 → 공격적 대처행동	-.02 -.55***	.31	-.02 -.55***	.31
처벌적 반응	1단계 (독립→매개)	처벌적 → 정서적자기조절	-.11*	.01	-.11*	.01
	2단계 (독립→종속)	처벌적 → 공격적 대처행동	.11*	.01	.08	.01
	3단계 (독립,매개→종속)	처벌적, 정서적자기조절 → 공격적 대처행동	.05 -.55***	.31	.02 -.55***	.31
스트레스적 반응	1단계 (독립→매개)	스트레스적 → 정서적자기조절	-.20***	.04	-.13**	.02
	2단계 (독립→종속)	스트레스적 → 공격적 대처행동	.15**	.02	.14**	.02
	3단계 (독립,매개→종속)	스트레스적, 정서적자기조절 → 공격적 대처행동	.04 -.55***	.31	.07 -.55***	.31

\*  $p < .05$ . \*\*  $p < .01$ . \*\*\*  $p < .001$ .

이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적 역할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과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 1단계와 2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 아동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하지만( $\beta = -.68, p < .001$ ),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이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행동조절 능력의 완

〈표 5〉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의 매개검증( $\beta$ ) ( $N = 407$ )

변인	단계	변인	어머니의 반응		아버지의 반응	
			$\beta$	$R^2$	$\beta$	$R^2$
정서 중심적 반응	1단계 (독립→매개)	정서중심적 → 정서적자기조절	<b>.12*</b>	<b>.01</b>	.08	.01
	2단계 (독립→종속)	정서중심적 → 사회지지대처행동	<b>.10*</b>	<b>.01</b>	.01	.00
	3단계 (독립,매개→종속)	정서중심적, 정서적자기조절 → 사회지지대처행동	<b>.08</b> <b>.18***</b>	<b>.04</b>	-.01 .19***	.03
문제 중심적 반응	1단계 (독립→매개)	문제중심적 → 정서적자기조절	<b>.19***</b>	<b>.04</b>	.08	.01
	2단계 (독립→종속)	문제중심적 → 사회지지대처행동	<b>.10*</b>	<b>.01</b>	-.02	.00
	3단계 (독립,매개→종속)	문제중심적, 정서적자기조절 → 사회지지대처행동	<b>.07</b> <b>.17***</b>	<b>.04</b>	-.04 .19***	.04

\* $p < .05$ . \*\* $p < .01$ . \*\*\* $p < .001$ .

전매개 역할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스트레스적 반응과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도 아동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의 완전 매개역할이 확인되었다.

〈표 6〉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의 매개검증( $\beta$ ) ( $N = 407$ )

변인	단계	변인	어머니의 반응		아버지의 반응	
			$\beta$	$R^2$	$\beta$	$R^2$
처벌적 반응	1단계 (독립→매개)	처벌적 → 행동적자기조절	<b>-.10*</b>	<b>.01</b>	-.07	.00
	2단계 (독립→종속)	처벌적 → 공격적 대처행동	<b>.11*</b>	<b>.01</b>	.08	.01
	3단계 (독립,매개→종속)	처벌적, 행동적자기조절 → 공격적 대처행동	<b>.04</b> <b>-.68***</b>	<b>.47</b>	.03 -.68***	.47
스트레스적 반응	1단계 (독립→매개)	스트레스적 → 행동적자기조절	<b>-.13**</b>	<b>.02</b>	-.09	.01
	2단계 (독립→종속)	스트레스적 → 공격적 대처행동	<b>.15**</b>	<b>.02</b>	.14**	.02
	3단계 (독립,매개→종속)	스트레스적, 행동적자기조절 → 공격적 대처행동	<b>.06</b> <b>-.67***</b>	<b>.47</b>	.08* -.67***	.47

\* $p < .05$ . \*\* $p < .01$ . \*\*\* $p < .001$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스트레스 대처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적 역할을 밝히는 것이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감정표현격려, 정서중심적, 문제중심적 반응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공격적 대처행동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가 처벌적, 스트레스적 반응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낮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나고 적극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며, 비지지적 반응을 보일 경우 아동의 자기 조절 능력 수준이 낮아지고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박서정, 2004; Eisenberg et al., 1995)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분노, 슬픔,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고 수용해주며 그 순간을 자녀를 가르치는 기회로 활용할 경우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대처방법을 이용하며 회복하는 능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이현민, 1998; 한영민, 2004)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이러한 연

구들이 자녀가 표현하는 정서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전반적인 정서에 대해 수용적일 때와 통제적일 때를 비교한 연구이기 때문에 자녀가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반응에 초점을 둔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 진다.

다음으로 아버지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처벌적, 스트레스적 반응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은 낮고,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비지지적인 반응이 아동의 부정적인 사회적·정서적 결과와 관계가 있다고 밝힌 연구 결과(Eisenberg et al., 1996; Gottman et al., 1997)와 유사한 맥락이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부정적인 반응이 아동을 생리적인 각성상태가 되게 하며 불안을 느끼게 하여 조절능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역기능적 행동을 하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과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적극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격적 대처행동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공격적 대처행동은 적게 사용한다고 보고한 김경숙(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가 감소하는 반면,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은 외현적인 문제행동을 나타내며, 사회적 유능성이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김호정, 2001; 박지숙, 2007)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둘째,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감정표현 격려, 정서중심적, 문제중심적 반응은 아동의 적극적 대처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감정표현격려, 문제중심적 반응과 처벌적, 스트레스적 반응은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문제중심적 반응은 아동의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스트레스적 반응은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처벌적, 스트레스적 반응은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동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적극적, 공격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과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스트레스적 반응은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Eisenberg, Fabes, Shepard, Guthrie, Murphy와 Reiser(1999)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위로해 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부모는 아동이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부모의 처벌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낮은 정서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이후에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예측한다고 보고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Eisenberg와 동료들(2001)은 5세-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문제행동,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조절능력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높은 사회적 능력 및 낮은 외재화 문제행동 사이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매개한다고 보고했는데, 이 역시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정서표현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받은 아동은 내적으로 생리적인 각성상태가 되며,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이전에 받았던 처벌과의 반복된 연합으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Gottman et al., 1997), 아동의 정서적 각성을 높이고 연장시키기 쉬워 아동이 조절되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증가한다(Eisenberg et al., 1996)는 연구결과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의 완전매개 역할이 확인된 본 연구결과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매우 의미 있는 요인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아동이 최초로 접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인 가정,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 요인이다(Dunn & Brown, 1994; Eisenberg et al., 1996). Gottman과 그 동료들(1997)은 자녀

가 적절한 정서표현을 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하는데 지지적인 부모의 자녀는 더 높은 자기조절 능력을 갖는다고 보고하였고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교사와 부모들에게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가 아동이 표현하는 정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며 수용적으로 받아주고 적절하게 다루어 주는 것은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이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보다 매개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과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후속연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아버지 반응보다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가 아버지의 경우보다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원희, 1997) 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아동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는 많은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정서를 교환하게 되지만 아버지

와는 상호작용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의 교환보다는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이에 대한 반응을 더 자주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이원희, 1997)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영향력 차이는 아동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표현하는 정서의 차이에서 기인했다고 예측해 볼 수 있으며, 후속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바람직한 반응 유형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뿐 아니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두 곳의 5, 6학년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와 아동의 질문지는 모두 자기보고식 측정 도구로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과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교사 및 또래집단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경숙(2003). 아동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통제감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광웅(2007). 자아존중감 및 자기수용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83-999.
- 김호정(2001).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정(1994).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하영 · 유안진(1998).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 박서정(2004).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연성 · 현은민(2007).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83-94.
- 박지숙(2007). 아동의 기질, 정서조절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희석 · 오상우 · 손정락(1993).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역기능적 태도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2(2)*, 179-196.
- 소영원(2006).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하나(2006).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과 아동의 정서적 적응이 부모의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 75-85.
- 신재선(2001). 초등학생의 또래 괴롭힘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은희 · 임미옥(2006).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97-106.
- 윤미라(2010).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주(2008).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 연구 : 아동의 자아개념과 부모, 교사, 친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옥주(2003).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3)*, 77-85.
- 이원희(1997). 부모의 양육태도 및 신념과 유아기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민(1998).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연집(2001).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정문자 · 박진아(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107-122.
- 조결자 · 이명희(2010). 중학생의 부모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자아효능감의 관계. *아동간호 학회지, 16(2)*, 120-127.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영민(2004). 부모의 정서표현 및 유아에 대한 정서 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nd, E. B., & Weisz, J. R. (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247-25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51, 1173-1182.
- Dunn J., Brown, J., & Bear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thei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455.
- Dunn J., & Brown, J. (1994). Affect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137.
- Eisenberg, N., Fabes, R. A., & Bernzwei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 : Procedures and scoring. Unpublished scale available from the authors. Arizona State university, Tempo.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 513-534.
- Eisenberg, N., Gershoff, E. T., Fabes, R. A., Shepard, S. A., Cumberland, A. J., Losoya, S. H., Guthrie, I. K., & Murphy, B. C. (2001).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social competence : Mediation through children's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 475-490.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ottman, J. M., & Nahm, E. Y. (2007).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감정코치**(엔터스 코리아 역). 서울 : 한국경제신문(원본 발간일 1997).
- Holahan, C. J., & Moos, R. H. (1987).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365-370.
- Mischel, W., Shoda, Y., & Peake, P. K. (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687-696.
- Pruett, K. D. (2000). *Fatherneed : Why father care is as essential as mother care for your child* (pp. 17-75). N.Y. : Free Press.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105-176). New York : Wiley.
- Rowlison, R. T., & Felner, R. D. (1998).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432-444.
- Sally, R. R., & Julie, A. H. (2002). Family expressiveness and parental emotion coaching : their role i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6), 657-667.
- Shields,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 The contribution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81-395.

2011년 4월 30일 투고, 2011년 9월 15일 수정  
2011년 9월 22일 채택